



대한항공이 폴세트 점전 끝에 승리했다. 한선수(왼쪽에서 첫 번째), 박승석(두 번째) 등 대한항공 선수들이 3일 의정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KB손해보험현전에서 승기를 잡은 뒤 한데 모여 기뻐하고 있다.

돌아온 박승석·한선수, 투혼 빛났다

〈대한항공〉

박승석 17득점 폭발…한선수도 독감 투혼
0-2→3-2 대역전승…대한항공 3위 탈환



대한항공은 3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KB손해보험과 4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3-2 승리를 거뒀다. 1~2세트를 먼저 내준 후 내리 3~5세트를 따내며 대역전승을 완성시켰다.

초반흐름은 완전히 KB손해보험 쪽이었다. 대한항공은 독감 증세로 인해 선발출전이 어려웠던 주전세터 한선수의 공백이 컸 보였다. 백업

세터 황승빈의 불안한 토스로 공격수들의 공격이 대부분 상대 블로커들에게 막혔다. 수비에서도 효율은 떨어졌다. KB손해보험이 2세트까지 블로킹 6개를 기록하는 동안 대한항공은 단 한 개의 블로킹만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 즉각 박승석, 한선수 카드를 빼들었다. 박승석은 종아리 부상으로 최근 결장이 잦았는데, 팀 위기를 구하기 위해 1세트에 긴급 투입됐다. 한선수 역시 황승빈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2세트부터 줄곧 코트를 지켰다.

박 감독의 교체카드는 그대로 적중했다. 박승석은 교체 투입 후 불을 뿜으며 사실상 주포 역할을 했다. 5세트까지 블로킹 두 개를 포함해

17득점을 책임졌다. 불안했던 팀의 서브 리시브까지 도맡아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한선수는 배대랑 세터의 진가를 보였다. 빠르고 안정적인 볼 배분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블로킹도 세 개를 기록해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 흐름을 끊었다.

5세트 접전은 분위기를 탄 대한항공의 최종 승리였다. 두 팀은 듀스까지 가는 치열한 혈전을 벌였지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대한항공이 웃었다. 가스파리나가 손현종의 공격을 막아내며 5세트에서 19-17로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팀 승리에 기반을 마련한 박승석과 한선수는 모든 체력을 쏟아낸 듯 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코트에 누워 포효했다.

의정부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5세트 불패’ 공식 깨진 GS칼텍스

흥국생명, 폴세트 끝에 승리…3연패 탈출

GS칼텍스는 2일까지 승점 16으로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6팀 중에서 최하위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GS칼텍스(7승9패)가 4위였던 인삼공사(6승10패)보다 이긴 경기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기묘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GS칼텍스의 '5세트 징크스' 영향이 컸다. GS칼텍스는 5세트에서 5전 전승을 거뒀다. 5세트까지 가서 이겨

서 승수는 많았는데 승점(5세트에서 승리하면 승점 2점만 부여) 추가가 더딘 탓이었다.

반면 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대결한 흥국생명은 5세트만 되면 지긋지긋하다. 5세트까지 간 경기의 시즌 전적이 1승6패로 절대열세였다. 특히 12월 17일 도로공사전부터 흥국생명은 3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모조리 세트 스코어 2-3으로 졌다. 특히 25일에 GS칼텍스에 5세트까지 가서 패하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겪었다. 흥국생명은 31일 도로공사에서 다시 세트

스코어 2-3으로 밀렸다. 1위 도로공사와 6위 GS칼텍스를 맞아 모두 풀 세트까지 간다는 것은 흥국생명의 저력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3일 대결에서도 흥국생명은 첫 2세트를 가볍게 따냈다. 그러나 3·4세트를 허무하게 내줬다. 5세트에서도 11-13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여기서 흥국생명은 이재영(27득점)을 앞세워 내리 4득점을 해냈다. 세트스코어 3-2(25-16 25-18 17-25 21-15 15-13)로 승리한 흥국생명은 승점 19(5승12패)로 5위를 유지했다. 반면 GS칼텍스는 이번 시즌 5세트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하며 승점 1 추가에 그쳐 6위에 그대로 머물렀다. 김명준 기자 gatzby@donga.com

창단·이적 리시…한국여자골프 ‘지각변동’

신생팀 넥시스·동부건설, 선수 영입 박차
전인지-KB금융·이정은6·대방건설 이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새해를 맞아 지형도를 확 바꾼 채 모든 단장을 마쳤다. 골프단 창단·확대가 이어짐과 동시에 정상급 선수들이 새 동지를 찾으면서 2018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연말연시를 달군 골프단 출범 리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모습이다. 2017시즌 종료 이후 넥시스와 동부건설이 신생팀을 창단했고, 이달에는 LPGA 골프웨어가 이례적으로 의류 후원팀을 새로 꾸렸다. 넥시스는 박유나와 최혜정을 비롯한 6명을 영입했고, 동부건설은 지한솔

과 박주영을 창단 멤버로 내세웠다. 2일 출범식을 마친 LPGA 골프웨어는 고진영과 장하나를 비롯해 총 7명을 후援하기로 했다.

몸집 키우기도 함께 이어졌다. 배선우와 홍란 등 이미 결출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던 삼천리는 2일 김해림과 조윤지, 이주미를 새로 영입했다. 2017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한화도 행렬에 동참했다. 한화는 4일 한화큐셀이라는 이름으로 골프단 간판을 바꿔댄다. 동시에 이정민을 데려와 선수단 폭을 넓혔다. 지난해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친 성과가 골프단 확대에 이어졌다. 한화는 김지현과 김인경, 이민영, 지은희 등이 2017시즌 한·미·일 필드에서 무려 10승을 합작했다.

이렇게 급작스런 판도가 여거꾸 흔들리자

선수들의 이적도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 2017시즌 6관왕에 빛나는 이정은6이 토니모리에서 대방건설로 자리를 옮긴 일을 시작으로 김민진5가 문영건설에 새 동지를 틀었다. 전인지는 KB금융그룹과 손을 잡았다. 이처럼 활발한 이적시장 덕분에 2018시즌은 선수들의 달라진 로고를 보는 재미가 배가 될 전망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잇따른 골프단 출범 열기는 최근 높아진 KLPGA의 인기를 입증하는 단면”이라면서 “확대된 인프라 덕분에 선수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스폰서와 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평창!”

평창동계올림픽 G-36

조직위·대한체육회, 평창 성공 다짐 대회
참석자 500여명 “평창 파이팅” 한목소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기홍)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3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건설된 개·폐회식장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열었다.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평창! 파이팅!”을 외치며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희범 위원장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은 참가 국가와 선수단, 메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지구촌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전통을 가미한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IT적인 올림픽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 모두의 열정

과 완벽한 준비를 통해 가장 멋지고 훌륭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모든 힘을 쏟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기홍 회장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평창대회가 남북화해와 평화올림픽, 그리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직위는 2일 일반에 배포한 마스코트 이모티콘이 큰 인기를 모으자 곧장 추가 배포에 나섰다. 조직위는 3일 “2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배포했던 마스코트 수호랑·반다비 이모티콘이 배포 6시간 만에 10만건 전량이 소진돼 3일 오후 3시부터 20만건을 추가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호랑 6종, 반다비 6종, 수호랑과 반다비가 함께 있는 혼합형 4종 등 총 16종으로 구성된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18평창’을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90일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과 단체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3일 강원도 평창군 개·폐회식장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다짐했다.

사진제공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마이티 모 vs 명현만…무술년 첫 빅매치 성사

3월10일 2018년 첫 대회 메인 이벤트
로드 투 아슬 등 올해 대회 일정 확정



로드 FC의 2018년 첫 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로드 FC는 오는 3월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로드 046을 개최한다. 이 대회의 메인 이벤트로 무제한급 챔피언 마이티 모와 명현만의 타이틀전이 열린다.

마이티 모와 명현만은 구면이다. 2016년에 이미 한 차례 맞붙었다. 당시 경기에서 마이티 모는 그라운드, 명현만은 타격에서 우세를 보이며 치열하게 맞섰다. 팽팽한 접전 끝에 마이티 모가 넥 크랭크로 명현만을 제압했다. 이번에는 무제한급 타이틀이 걸려있는데, 명현만의 그라운드 기술이 크게 늘어 승부는 예측불허하다.

로드 FC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치를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총 8차례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5회, 중국에서 2회,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각각 1회의 대회를 연다.

100만 달러 토너먼트 우승자도 가려낸다.



로드 FC 046 대회 포스터.

현재 100만 달러 토너먼트 ‘로드 투 아슬’은 4강 진출자가 결정됐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파이터는 로드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과 최종 우승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파이터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한다.

정문홍 전 대표 및 김대환 현 대표의 경기, 윤형빈, 김보성의 복귀전도 발표된 상황이다. 사랑나눔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되고, MBC에서 방송된 지상파 최초의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겉 없는 녀석들’이 시즌 2와 함께 중국 버전으로도 제작된다.

최현철 전문기자 choihs2@donga.com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에 윤정섭 교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정섭)는 3일 한국종합예술학교 윤정섭 명예교수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과 2019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의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서울대 미대 원장 윤정섭은 1978년부터 17년 간 문화방송 무대디자이너로 일했고 한국 TV디자이너협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극, TV, 각종 이벤트의 무대디자인과 애니메이션 디자



윤정섭 총감독

윤정섭 총감독은 “208개국 1만5000여명이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끼며, 빛과 물의 도시인 광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성공적인 개·폐회식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